



# 時 計 塔

SIGETOP



2012년 10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9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金 一 泳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李 元 澤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 SNUCMAA 30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제30차 학술대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래와 같이  
예정하고 있어오니 동문들께서는 미리 계획하시어 많은 참석 바랍니다.

**March 14(Thur) ~ March 17 (Sun), 2013**

**PACIFIC PALMS HOTEL**

1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www.pacificpalms.com](http://www.pacificpalms.com)



# 제1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2년 9월 29일(토)  
 장소: LA meeting, JJ Grand Hotel, LA 오후 4시  
 GNY meeting,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저녁 7시

**참석자: LA**  
 김태웅(63) 한동수(66) 김홍서(69)  
 김일영(71) 박진국(71) 김성환(71)  
 안상훈(94)

**참석자: GNY**  
 노용면(55) 이만택(58) 이희경(61)  
 최준희(64) 최순채(66) 감창홍(71)  
 문대옥(73) 서인석(73) 이영인(86)



**PROXY**  
 김병석(59) 손영진(62) 이명희(66)  
 최영자(66) 김병오(69) 엄규동(69)  
 조영갑(70) 조세진(71) 곽승용(71)  
 김유식(71) 이원택(71) 이희영(71)  
 오용호(72) 고용규(73) 나두섭(73)  
 최광휘(76) 박일우(77) 김동훈(77)  
 백승원(79) 심인보(83) 조형기(92)

서부와 동부의 동시 회의 시도를 하며 회의는 김일영 회장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다.

1. 성원 점검 후 서부에서는 오후 4시에, 동부에서는 저녁 7시에 동시에 회장의 개회 선언.

2. 2011-2012 제2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재청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

3. Fund Raising committee (이희영 위원장): 각 Fund Category별 현 상황 보고가 있으면서 현재 동부로 많이 치우쳐 있는 donation의 현 상황으로 서부 쪽의 fund raising에 support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4.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Fund manager John Baek 참석과 서면 보고를 통하여 현재 날짜의 balance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5. Silver Project committee (손영진 위원장): 내년에는 Post convention tour로 실버 프로젝트 여행을 할 계획이고, 예상중인 아이슬란드 여행은 차후 더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6. Green Project committee: 이영인 위원장의 보고에서 현재 Green Project는 미전역 Young 동문의 주소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Young 동문의 활약으로 서울본교 의대생의 summer electives placement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작년에 있었던 박준홍 fund로 이루어진 young alumni에 대한 학술대회 초대 project의 연장 요청이 있었고, 자세한 동창회의 support는 차후 의논 후 결정할 예정이다.

7. Scholarship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의 보고에서 5명의 미주 거주 학생이 SNUCMAA of NA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 2명의 미주 거주 학생이 송관호 장학생으로, 2명의 미주 거주 학생이 김태웅(63)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이사회 approval이 있었다.

8.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서면 보고를 통하여 더 많은 회원의 참여로 하여 더 많은 원고가 들어오기를 당부 하였다.

9.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서면 보고를 통하여 올해에는 자원이 없으므로 타전을 통하여 작년의 후보중 한명을 다시 추천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였다.

10. Nominating committee: 문대옥 위원장의 보고에서 9월 말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president elect와 new board of Director 10명의 임명에 대하여, 현재에서 1달의 기간 내에도 같은 부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현 회장이 새 이사 10명을 선택, 임명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11. Finance committee: 2011-2012 최순채위원장 보고에서 2011-2012 financial statement가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하고, 세부 보고에서 외부 지출 중 인쇄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편집 위원들의 재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시도를 해 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12.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주소록 발행건: 2011-2012 동창회 한 해 동안에 동창회 주소록 발행을 준비하여 현재 회원 정보가 update된 숫자는 500명을 조금 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에 접수된 Questionnaire로 update가 된 회원과 7월 시계탑 배부 이후에 들어온 회비 납입서와 봉투를 통하여 된 update가 된 회원의 숫자이다.

이 숫자는 전체 회원 수에 비하여 적은 숫자이므로, 10월호 시계탑에 다시 한 번 광고를 내고, 우편으로 2차 Questionnaire를 내보내어 update 협조를 구하는 의논이 있었다. 협조가 없는 회원들의 정보는 예전 그대로 발행이 된다는 내용을 삽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주소록 발행을 위한 임시 위원회(Ad hoc Committee)에 대하여 위원장은 현 동창회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박진국 2012-2013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동창회장과 주소록 발행 위원장의 상의 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동기 회장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광고 협력을 최대화 해 보자고 결정 되었다.

13. 김일영 회장의 제30차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참석 당부가 있었고, Post Convention Tour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다.

상세한 내용은 10월 시계탑에 광고로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참석을 해 주신 위원장과 이사에게 김일영 회장의 감사 인사가 있었고, committee report를 작성해 주신 모든 위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이 전해 졌다.

마지막으로 동부와 서부의 참석자의 기념사진 촬영으로 동서부 동시 회의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 기록: 안상훈(94, 부총무)

# FINANCIAL REPORT

For The Fiscal Year Ended June 30, 2012

## GENERAL FUND CURRENT REVENUE

Membership Due		74,815
Scholarship Contribution	10,000	
Less: Transfer Out to Scholarship	(10,000)	
Public Donation		35,025
Green Project Revenue	12,375	
Less: Transfer Out to Green Project Fund	(12,375)	
Other Income		5,385
<b>Total Revenue</b>		<b>115,225</b>

## EXPENDITURES

Bank Charge	357	
Advertisement	300	
Banner	360	
Computer Expense	200	
Credit Card Machine	214	
Award	71	
Executive Committee & Committee Meeting	6,587	
Charitable Donation	3,000	
Fraternity Activities	592	
Local Transportation	705	
Internet	20	
Payroll and Payroll Taxes	38,494	
Postage/Shipping/Delivery	1,313	
Printing, Copying, Supplies & Office Expense	30,671	
Professional Fee	3,100	

Revenue Sharing	6,078	
Telephone	2,660	
Travel Exp. Reimbursements	643	
Utilities	1,150	
<b>Total Expenditures</b>		<b>96,515</b>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18,710	

## GENERAL FUND BALANCE

Fund Balance as of June 30, 2010		40,171
----------------------------------	--	--------

## Increase(Decrease)

General Fund Current Fiscal Year	18,710	
Transfer from(to) Summer Convention	26,264	
Excess of Revenues over (Under) Expenditures		44,974
<b>Fund Balance as of June 30, 2012</b>		<b>85,145</b>

## BALANCE SHEET

### ASSETS

Cash in Bank	163,321	
<b>Total Asses</b>		<b>163,321</b>

### LIABILITIES

Due to Hamchoon Research Project Fund	1,430	
Due to Scholarship Fund	52,576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20,770	
Appropriate Fund for Revenue Sharing	3,400	
Total Other Increase(Decrease) in Cash Position		78,176
<b>Net Fund Balance</b>		<b>85,145</b>

## MEDICAL CONVENTION

### REVENUE

Donation		56,430
Member Registration & Event Fee	75,589	
Refund		75,589
<b>Total Revenue</b>		<b>132,019</b>

### EXPENDITURES

Convention Expense - Banquet	52,953	
Convention Event	3,450	
Credit Card Machine	195	
Gifts and Awards	1,053	
CME	3,000	
Flower	400	
Brochure Printing & Mailing	8,659	
Golf and Tennis	15,038	
Internet	32	
Postage and Shipping	933	
Speaker Travel Expense Reimbursements	1,139	
Guest Speaker Honorarium	8,400	
Travel Expense	3,714	
Meeting	1,341	
Visual Aids & Copy	3,333	
Office Supplies	815	
Gratuity Expense	1,300	
<b>Total Expenditures</b>		<b>105,755</b>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26,264

## GREEN PROJECT FUND

### REVENUES

Public Donation	12,375	
<b>Total Revenue</b>		<b>12,375</b>

### EXPENDITURES

Travel Expense Reimbursements	10,000	
Green Project Funding	651	
Meeting Expense	170	
<b>Total Expenditures</b>		<b>10,821</b>

Excess of Revenues over (Under) Expenditures		1,554
Beginning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19,217
Ending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20,771

# 동문동정 및 시부소식

## 남가주지부 '선후배의 밤' 모임 보고

서울 의대 남가주 동창회는 2012년 8월 25일, 토요일, 저녁 6시에 LA에 위치한 Oxford Palace Hotel에서 '서울의대 동창회 선후배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한여름 밤의 뜨거운 열기를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석을 소망하여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떨어져 계신 동문들을 위하여 54인승 버스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로하셔서 운전하시기 불편하시어 참석하지 못하셨던 선배님들도 참석하시게 되어 120여명이 모이셨습니다.

차민영(82)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외부의 화려한 퍼포먼스 팀들은 일체 배제하였고 고용규(73)동문의 부인 되시는 고은옥 바이올리니스트의 감동의 연주로 한층 자리가 빛났으며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답소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대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2012년 주소록'을 새로 발간하여 이날 배부해 드림으로 앞으로 선후배 간을 잇는 동창회의 매체로 활용되어 더욱 원활한 소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 남가주 동창회에는 회장 전경배(75), 부회장 최광희(76) 차민영(82), 총무 조형기(92), 재무 김동훈(77), 이사장 전희택(64) 동문들께서 임원진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 조형기(92) 보고



## Western 뉴욕지부 Annual Ball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례만찬을 동문들과 함께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저녁 6시  
장소: Transit Country Club  
Amherst, New York

## 대뉴욕지부 Annual Ball

서울의대미주동창회 대뉴욕지부 연례만찬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이켜보며 선 후배 동문들간에 정담도 나누며 화기에애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장소: Teaneck Marriott at Genpointe  
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 이만택(58)동문 미주한인의사회 '최재창 상' 수상



지난 7월 4일 남가주에서 개최된 제30차 미주한인의사회(KAMA) 컨벤션에서 이만택(58)동문이 미주한인사회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주한인의사회 대상인 '최재창 상'을 수여받았다.

동시에 Congress에서 수여하는 'Certificat of Congression Recognition'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이 만택 동문이 의료계 공헌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미주 의학계에 발휘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수여 받은 것이다.

이 동문은 현재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회장으로 서울대학교의 세계 정상대학으로 도약하도록 학생들에게 장학금, 교수 연구지원 등을 돕고 있다.

## 이원택(71) 동문 신인문학상 수상

본지 편집위원회인 이원택(71)동문이 2010년 수필 등단에 이어 '아지트'의 2편의 시로 지난 9월에 종합문예지 '한국문인'이 수여하는 시 부분 신인상을 받아 시인으로도 등단 되었다.

## 1973년 동기 소식

1973년 동기들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예방의학 조수현 부부가 첫 손녀 상견례 겸 뉴욕을 방문했다. 내년 10월에 가질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 의논도 하며 오랫동안 회포를 풀었다.



##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이번 시계탑 4분기 출판분과위원회 모임은 9월 19일 저녁 6시에 Flushing, NY에서 있었습니다. 편집 위원들 모두 12명이 참석하여 최다 참석인원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열정적인데 비하여 원고는 가장 적게 들어왔습니다. 끝내 원고가 부족하여 출판위원들의 글을 불가피하게 실었음을 독자여러분들께서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일을 피하기위해서도 동문 독자들의 활발한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출판위원장 김병석(59, 대뉴욕)



## 남가주지부 Annual Ball

서울의대미주동창회 남가주지부 2013 신년 만찬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선 후배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Oxford Hotel  
Dynasty room, 745 S. Oxford Ave, LA CA 90005



## 웰빙과 웰다잉

김 병 석(59, 대뉴욕)

지난해 건너편 강가에는 공사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똑딱똑딱 기계 부딪치는 소리가 곧 이 강에 배를 띄우겠다는 얼마전 뉴스를 다시 기억시켜 주었다. 이 강에 배가 다니면 이 강물의 흔들림과 오르내림을 즐기면서 가까운 섬까지 가볼 셈이다. 강 양쪽으로 인가가 보이고 숲이 가까이 있는 강물을 타고 내려가면 망망대해가 열리리라. 처음 가는 이 물길에 얼마나가 습 설레일까. 그 어딘가에 도착하면 떠나간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부모님 모두 돌아 가셨고 요즘은 친구들 부고가 날아오기 시작했으며 장례 때 마주하는 친구들의 머리위 흰 서리에 눈이 시리다. 이렇게 떠나는 이들과 남는 이들 모두가 눈물의 강을 타고 함께 항하고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 온 세기를 통틀어 죽음에 대한 유일한 결론은 없었다. 죽음 후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기도 하고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 한다.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게 해보려고 이론을 제시해 보였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완전한 경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죽음이 완전한 끝이라는 것과 반대로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어떤 의견에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좋다 싫다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 아닌 가 싶다.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과 관련된 많은 환자들을 보아왔고, 정신 분석학자로서 인간내면과 무의식의 호소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아 주는데 일생을 살아온 나 역시 진정 죽음에 대한 예제 앞에 서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던 죽음을 단 한 번에 이루게 된다.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해 내어 현재에 느껴 보듯이 미래에 올 죽음을 불러 와서 느껴볼 수 있다면 서툴거니 할 죽음, 공포를 느끼는 죽음에 조금은 친숙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어갈 수 있을까? 이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자연의 일부, 우리 인생의 과정임을 쉽게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머문 생각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불치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내며 존귀한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의료 체계로서 갑작스러운 사고사가 아닌 사람들이 갖게 될 죽음의 준비 즉 새로운 죽음 문화이다. 그동안 여러 호스피스 케이스를 접하며 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죽음 교육이 필요하며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호스피스가 자신의 인생관에 맞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같이 살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과 같이 죽음도 마찬가지로, 몸에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을 떼어낼 수 없음을 알고 마음으로 다독이며 화해하며, 죽음을 통과할 때 나 혼자만 아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 또한 그러하리니 죽음이야말로 우리들을 가족들과 일치와 조화를 주고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미래를 향해 보나온 삶을 위해 정화하게 한다. 이 글을 바치는 뜻은 우리 모두의 삶이 시계 초침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며, 죽음까지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맞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얼마 전 친구들과 이야기 하였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까 생각한 만큼 이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며 살자고,

웰빙과 웰다잉은 한 사람의 다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웰빙으로 살고 웰다잉으로 죽을 때까지 충분히 느끼고 즐기고 나누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게 될지...

### I. 웰빙과 웰다잉

병들거나 늙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가며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웰빙과 웰다잉은 함께 달리는 철도와 같다. 각 다른 이슈같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여 정점에서 만난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삶이야말로 웰빙이요 웰다잉을 위한 삶이다.

1. **정규적 종합 검진**: 매년 때를 정하여 종합 검진을 하며 가족 병력과 현재 상태에 면밀한 진단을 받아 건강 관리를 한다.

2. **의 식 주**: 자신의 일상생활을 무심코 지나지 않고 먹고 입고 쉬는 일에 정성을 쏟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3. **인간관계**: 내가 원하는 삶을 기대하며 살듯이 어느 누구라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열망하는 최선을 알고 인정하며 자신의 의도와 부딪치는 것보다는 함께 흘러가듯이 살자. 짧은 혈기와 감정이 나이 먹어 성숙해 가다보면 삶과 사람사이의 잘잘못과 성취와 실패가 그리 큰 차이가 없음을 그 과정 자체가 경이이요 인생의 여정이었음을 안다.

4. **행복 만들기**: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행복에는 평균점수나 합격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 없는 인생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마치 해가 있는 이 우주에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듯이, 행복할, 행복을 느끼라, 행복을 기억하라, 행복을 만들라, 행복은 창조이다.

5. **부자 이야기**: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겨우 일부분일 뿐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재미와 지혜와 성장을 위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다. 돈과 물질을 잘 경영(가지고 놀다가)하고 정리해두고 떠날 일이다. 아이들의 놀이 후에 아이들에게 장난감 정리를 잘 하도록 기대하는 것처럼, 여행을 떠날 때에 짐이 너무 많으면 여행 중 힘이 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챙기지 못해도 여행 중에 불편을 느낀다. 가지고 있는 것을 유용하게 쓰고 물질 때문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누가 부자인가, 돈이 많은 사람?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위해 시간과 인생을 소비해야 한다면 그는 부자라 아니라 노예이다. 있는 것을 충분히 이용하고 없는 것에 대한 순리적 대응을 하면서 모쪼록 결핍과 불편을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 인생의 후반에 다다라서 과연 자신을 부자, 인생의 부자(풍요로운 삶)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6. **여행**: 틈틈히 되도록이면 충분히 여행을 한다. 여행은 인생의 연습이고 삶의 활력과 확장을 돕는 여정이다. 유명한 관광지를 찾거나 유적지 앞에서 사진을 찍는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거리의 여행에서도 새로 보고 접하는 사물과 사람과 문화에서 자신의 정신적 영적 세계를 찾아본다. 자신의 일상을 떠나서 현재의 자신과 미래를 꿈꾸어 볼 수 있다.

7. **취미와 예술과 운동**: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꼭 하도록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운동이나 사회의 인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정을 느끼고 자신의 감각이 생생해지는 것을 취한다.

8. **기도**: 어느 종교에 속하든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기원과 축복은 삶을 정화하고 고귀하게 한다. 정해진 장소에 무릎 꿇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숨 쉬듯이 매 순간을 축복하라. 그 때, 내가 보고 느끼고 대하는 그것에 우주와 내 생명이 만나는 환희의 순간이다.

9. **선물**: 일부러 선물을 사기 위해 사표를 하거나 무엇을 살까 궁리하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집안 전체를 돌아본다. 쌓여있는 물건 중에 좋은 선물이 있다. 누구에게나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선물을 받았을 때와 같은 기쁨이 있음을 볼 것이다. 마음 안에 미소가 번질 것이다.

10. **편지**: 편지를 쓴다. 가까이 있는 친구, 자녀들, 멀리 있는 친지들, 만날 수 없는 지나간 인연들에게도 편지를 쓴다. 나 자신에게도 편지를 쓴다. 평소 하고 싶었던 제안이 있었다면 신문사에도 방송국에도 종교 단체, 사회 단체, 자선 단체나 정당 단체에도 편지를 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곳에 편지를 쓴다.

11. **일기**: 현재의 일기를 쓸 때에 날마다 한 두 줄씩을 쓰는 것부터 시작한다. 행복한 일, 기쁨의 순간을 적는다. 자신이 들은 것, 본 것, 느낀 것을 짧고 단순하게 쉽게 적어둔다. 자신의 삶을 정리해볼 생각이려면 <거꾸로 써가는 일기>도 좋다. 즉 지금 시간으로부터 조금씩 과거로 돌아가보면서 비디오풀리듯이 자신의 삶을 적어보며 감정과 기억을 정화한다. 많은 것을 깨닫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12. **노래**: 일생동안 듣고 배우고 배운 노래 중에서 나의 노래 몇 개들을 자주 부르자. 그 노래에 머물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즐겁게 하자. 비애와 슬픈 노래보다는 평화와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는 노래가 좋다. 흔히 말하는 18번이라 하는 것을 지금 새로 정하자. 많은 사람이 좋아해야 할 노래도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과 미래를 위한 노래, 자신에게 꼭 맞는 점서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노래가 좋다.

13. **법적 정리**: 현 사회에서 법적 체계에 맞는 주변 정리를 항상 점검해두면서 산다. 미루거나 짐작하여 방치해두면 언젠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가 사는 환경과 상태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어느 날 따뜻한 웃음과 함께 건네주라.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떤 선물을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이 자리를 비우고, 내 비단 유산 정리나 유언장 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법적 서류나 증빙 자료는 모두를 잘 관리하고 정리한다.

14. **돈과 부동산 관리**: 젊은 날에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던 때와는 조금 다르다. 현금 출입이 쉽게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구좌 사용을 줄이고 정보와 내용을 잘 기록하여 보관한다. 부동산의 권리 증서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자녀들과 공동 명의로 해둘 수 있고, 회사설립의 형태로 바꾸어 둘 수도 있으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봉사 활동**: 자신의 재능과 시간의 일부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정신이다. 교회에 십일조를 내거나 복을 빌기 위해 어떤 기부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이었으나 자신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재능을 실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좋은 실천이며 자신의 성장과 성화를 위한 일이다.

16. **가족 모임**: 일년중 때를 정하여 전체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기를 권한다.

17. **유머**: 유머와 코믹한 시간을 자주 갖는다. 유머에 관련된 책, 영화 등을 즐기고 실생활에서 지인들과 소리

내어 웃고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라. 평상시에도 유머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결 기분을 전환시킨다.

18. **죽음 연습**: 가족들을 참관시킨 후에 침대에 누운 채 가족들에게 한 사람씩에게 마지막 유언과 이별의 대화를 나눈다. 이런 죽음 연습에서 가족들도 가상의 임종을 생각하고 마지막 말을 나누어 본다.

19. **추억을 남기며**: 현실을 충실히 살며 좋은 추억을 남기는 것이 삶다운 세상이다. 나는 이제까지의 인연들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추억이 되어 가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나와 추억이 남은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움이 될까?

### II. 내 자신의 웰다잉을 위한 준비를 현재 진행형으로 해본다.

1. 유서 써보기. 2. 비문 미리 써두기. 3. 유산 상속 초고 쓰기. 4. 하루에 한 줄씩 일기 쓰기. 5. 행복한 일을 일기로 써두기. 6.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 사전 지시서와 의료결정 대리인 설정하기. 7. 장례일정 시나리오 쓰기. 8. 지인들에게 마지막 편지 쓰기. 9.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서 죽기 전까지 꼭 해보고 싶은 일. 10.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서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11. 용서 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 쓰기/대화하기. 12. 용서 받고 싶은 일, 사람과 대화하기. 13. 나의 임종 예상 시나리오. 14.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15.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16. 딱 1인분의 내 시간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17. 내가 함께 해온 친구들을 돌아본다. 그들과 나의 관계, 기억과 느낌 등을 정리하여본다. 18. 내가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을 생각해보는다. 19.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다. 20. 살아갈 일과 죽을 때의 일까지를 시나리오처럼 적어본다. 21. 친구들을 생각해보고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이름을 적기. 22. 가상 입관 체험/죽음 체험 해보기. 23. 자신이 신상 명세 기록을 작성해둔다.

### III. 미리 준비해둘 것

1. 유언장. 2. 의료 수혜 결정 사전 지시서. 3. 재산 명세와 증빙서류. 4. 가족, 친인척, 친구들의 연락처. 5. 가족들의 생년월일, 중요한 기념일. 6. 자신의 주치의와 치료받아온 병원 이름, 주소, 전화. 7. 응급시 연락할 사람, 병원 응급실, 의사 연락처. 8. 자신의 종교 단체 연락처. 9. 장례에 대한 자신의 결정 사항. 10. 집안 선산 또는 장지나 납골당 설정. 11. 자신이 원하는 제사의 의식과 내용. 12. 장기 기증 여부와 기증 서류. 13. 의료결정 대리인과 법적 대리인 설정. 14. 임종 시 그리고 임종 후에 입고 싶은 옷. 15. 호스피스를 받고 싶은 장소와 내용 설정. 16. 자신의 일생에 대한 기록 만들기. 17. 세금 내용 정리와 증빙 서류 보관. 18. 보험 내용과 증서 정리. 19. 비싼 소장품이나 사소한 것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메모와 함께 준비하여 두기. 20. 자선 단체나 특정 단체에 기부할 기금 또는 물건 또한 서류화 해두기. 21. 법정 대리인 설정 해두기. 22. 의료결정 대리인 설정 해두기. 23.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의 이름과 양과 적용 증세에 대해 정리. 24. 셀 폰에 연락처를 입력해 둬. 25. 인터넷의 개인 정보(이메일, 인터넷 बैं킹 등)를 정리하여 둬. 26. 채권과 채무 내용과 증빙 서류. 27. 은행의 safety box의 출입에 대한 내용. 28. 활동이 불가능할 때에 읽을 수 있도록 임종의 격려와 조언이 될 내용을 자신에게 편지로 써둬. 29. 자녀들의 사진을 따로 따로 정리. 30. 자신의 사진, 상패나 기념패.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주근원 명예교수님께서 지난 8월 5일 별세하셨습니다.
- 고창순 교수님께서 지난 8월 6일 별세하셨습니다.
- 송요섭(50) 동문께서 지난 8월 18일 Iowa에서 별세하셨습니다.
- 박봉희(58) 동문이 지난 6월 23일 별세 하였습니다. 박동문은 New Jersey Long Branch에서 마취를 practice를 하였습니다.
- 이백기(58) 동문께서 지난 9월 18일 Ohio에서 별세하셨습니다.
- 이종현(66) 동문의 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추모예배는 지난 9월 28일 뉴저지에서 있었습니다.

## 주근원 명예교수 별세

주근원 서울의대 명예교수님께서 지난 8월 5일 향년 94세의 연세로 별세하셨다. 환경남도 합흥시 출신이신 주근원 교수께서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1943년에 졸업하시고 1946년에 서울의대 비뇨기과교실을 창립하셨다. 그후 오랜 세월을 두고 후배들에게 비뇨기학을 가르치셨다. 최근에는 한국배상외과학회 회장을 지내셨다.

1997년에 나의 책 '자살이나 타살이나' 의 출판기념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때 주교수님께서 참으로 따뜻한 축사를 해 주셨다. 선생님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보내는 바이다. - (노용면, 55 대뉴욕)

## 고창순 선생님 회상

2012년 8월 6일 아침에 안타깝게도 고창순 교수님이 타계하셨다. 서울의대에서 평생을 보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화학자이면서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핵의학과 갑상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의학 지식 뿐 만 아니라 인성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제자를 키우려고 노력하신 진정한 선생님이었다. 나는 35년간 가까이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지내는 행운을 입었다. 이 분복을 나누는 입장에서 생각나고 느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 본다.

우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셨다. 흔히 사용하는 교수, 과장이나 부원장이라는 말은 직함을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박사라는 호칭을 피하는 것은 의료계에서 의학박사는 너무나 많고, 또 선생님이 박사를 손수 만들어 주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보다 인성을 먼저 살고 있어 보여 주고 가르쳐 준다는 의미의 先生님이 가장 적절한 호칭이라는 생각이셨다.

어려서부터 선생님은 천성이 낙관적이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나중에는 160cm 초반의 단신이 되었지만, 중학생 시절까지는 작지 않고 탄탄한 체구에 영리한 소년이었다. 평생을 고향에서 외과의로 보낸 아버지와 해방 후 정치에 참여한 여장부인 어머니 아래 7남매의 막내로 경기중학, 경기여중을 다니는 형과 누나가 있었다. 생각해 보시라, 그 당시 경남 의령 시골에서 우리나라 최고인 경기중학과 경기여중에 연달아 합격을 했으니, 이러한 자랑스러운 가풍에 체력과 능력이 남보다 뛰어났던 소년은 어릴 적부터 거칠 것이 없었고 골목대장을 도맡아 하였단다.

선생님의 경남중학교 동기생인 용인송담대학교의 최영철 이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생님은 항상 학교 담벼락 위를 걸어 다녔다고 한다. 학교 훈육교사가 보이면 교내로 들어오고, 안 보이면 밖으로 뛰어내려 극장이나 광복동 시장으로 놀러 다녔다고. 그러나 밤늦게 돌아 와서도 잠자기 전에 반드시 1-2 시간씩 공부를 해, 전교 수석을 한 적도 있단다. 우수한 체력에 운동감각도 있어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태권도를 즐겨해 이런 학창 시절의 인연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부산 출신 정치인들과 연결이 된다.

부모님은 좌충우돌하는 막내가 걱정이 되어 다소 엄하게 키우셨단다. 올바른 정신을 가르친 영향으로, 초등학교 시절 반장으로 급우를 챙겨 주고 일본인 교사에 대하여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기도 했다. 평생을 시계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님과 남의 일에 발 벗고 다니는 어머니의 생활 자체가 고 선생님의 성격과 의지 성장에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

서울의대 부속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방사선외과연구소에서 5년을 근무한 후, 1969년에 서울의대 교수로 복귀하셨다. 연구소에서 고위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는 연구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정서와 질서를 익히고 넓은 인맥을 쌓았다. 나중에 선생님이 의학계의 리더로 활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중년과 장년 한창의 나이에 서울의대에서 교육, 진료, 연구와 봉사를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셨다. 어려서부터 다져 온 몸과 마음에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나는 이 시절 선생님 책상위에 "태양처럼 뜨겁게 살리라" 라는 시구를 본 적이 있다. 이 모토에 걸맞게 일과 후에도 누구 못지않게 토론, 회식과 음주를 즐겼고, 사회 교제에 열중하셨다.

이런 생활은 사모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어서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부자 집의 무남독녀인 사모님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선생님과 결혼하셨다. 일본에서 교육 받고 자라서 남편에 순종파인 사모님은 막내며 느리지만 홀로되신 시아버지를 모셨다. 고 선생님은 이런 배경을 믿고 전문의가 된 후에도 10년 동안 월급을 집에 가져오지 않고 선후배와 교제하며 사회 생활 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꼭 찬 내실과는 달리 밖으로 선생님은 겸손하셨다. 자서전에서 선생님은 젊어서부터 생긴 암 덕분이라고 하셨다. 인턴이던 24세에 대장암, 부원장이던 50세에 십이지장암, 장년을 맞은 65세에 간암이 생겨 평생을 죽음과 마주하며 보내 남들과 다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재물이나 명예 등 부질없는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계셨다.

아마도 내리신 결론이 남을 도와주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win-win 전략인 것으로 짐작한다. 자서전 제목이 "도전과 화합으로 걸어 온 삶" 인 것이 그 증거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도 타인과 다른 조직간의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셨다. 일찍이 1980년도 초에 갑상선학회와 내분비학회를 통합하고, 또 노인병 관련 3학회를 통합하였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단합해 목표와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셨다.

선생님은 넓은 시야와 사물의 핵심을 찾는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새 장을 열 때 마다 선생님이 주도하시곤 했다. 1977년 처음 빙고 식사하는 나에게 말씀했다. "나는 밥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 고. 잘 먹는 사람은 자연히 건강해져 일과 공부를 잘 하게 되므로 좋아 한다는 해석이었다. 또, 선생님이 주관하신 장학회에서는 성적이 낮은 의대생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주었다. 좋은 지능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나쁜 경제사정 등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해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관습적 생각에서 벗어나 핵심을 꿰뚫는 지혜와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대해, 의료계 인파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계셨다. 한번 만나면 소탈하고 거짓 없는 태도에 오랫동안 친교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교적인 성격으로 1978년 법인체로 출발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제1, 2부원장을 맡으면서 이 거대한 조직이 안정화 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 후에 문민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으셨고, 정부에서 의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게 하였다.

1916년 경성의전을 졸업해 우리나라 초창기 양의사이신 아버님을 따라 의학에 입문한 선생님은 천성적인 의사였다.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는 환자는 가족처럼 돌봐주셨다. 남을 도와주기를 즐겨해 선생님 방 앞에는 항상 다급한 사람들이 줄서있었다. 선생님의 생활신조가 '하루에 한사람 돕기' 라고 기억한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물심양면 전 방위적으로 정성을 들여 제자를 키우셨다. 많은 제자들이 감화를 받아 선생님을 '학문적 아버지' 로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다. 매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 해를 깨끗이 보내는 의미로 제자들과 함께 목욕을 하곤 했다. 새해에는 모두들 선생님 댁으로 세배를 갔다. 당시의 관습으로 모든 내과 전공의가 다 모여 들었다. 1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의 식사를 챙기느라고 사모님께서 특히 고생하셨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따뜻하셨다. 항상 우리들을 격려하셨고, 제자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셨다. 부원장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자들이 소원해지면 섭섭해 하셨고, 즐겨 진료와 연구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려고 노력하셨다. 지도학생인 일개 의대생의 고민을 밤새고 들어 주시고 의논해 준적도 있다.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선생님은 용의주도한 계획 하에 필요하면 온 몸으로 부딪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셨다. 그리고는 이루어 내셨다. 행동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어느 스승하고는 달랐다.

그러나 제자 교육에는 철저하셨다. 내가 인턴 때에도 핵의학 책을 주고 공부시키고, 전공의 2년 차에 새로 도입한 영상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전산 교육을 여러 전문가에게 부탁했다. 제자의 연구가 부진하여 집에서 이불보따리를 가져와 연구실에서 같이 동숙하면서 격려한 적도 있다.

제자의 성공을 선생님처럼 기뻐하는 교수는 없을 것이다. 보직을 맡고는 진료와 연구의 대부분을 제자에게 넘겨주었다. 그 성과나 명예도 선생님이 차지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여건과 기초를 마련하고 제자들이 마무리하고 열매를 따가도록 했다. 덕분에 여러 제자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수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아마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일 것이다. 보잘 것 없는 능력을 가진 나를,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기회를 주고, 교육과 교정을 하고, 방패가 되어 주면서 조금이나마 업적을 이루게 했다. 그리고는 모든 영광은 나에게 주었다. 마치 자식에게 재산을 조건 없이 넘겨주듯이.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무엇을 후세에 남길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의 증거일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쓸쓸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다. 훌륭한 업적, 많은 재산, 높은 명망, 고귀한 인품? 또는 번창한 자손? 어느 것이 맞는 답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돌아가신 임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린다면 잘 산 인생이 아닐까?

그렇다면 고창순 선생님이 으뜸이다. 뒤에 남은 우리 모두 이토록 그리워하기 때문에. - 정준기(77,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 친구 봉희 형을 보내고

요즈음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는 않지만, 지난달에 나와 가까이 살며 전화를 통해서라도 서로의 신변에 일어나는 일 들을 알리며 지내던 친구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때에.

허무하고, 또 어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나 하고, 여러 번 똑 같은 질문을 하곤 했다. 인명이 질기다는 말을 흔히 듣고, 그 예들도 부지기수 인데.. 어찌되었든, 그 친구는 아들들, 손자들, 손녀들, 며느리들 모두 함께 5월 중순까지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누구도 그 친구가 생명을 그렇게 쉽게 앗아갈 만 한 병을 가졌었다고는 상상도 못한 모양이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받고 찾아갔을 때도, 쇠약해진 모습이 역력하기는 했지만, 나를 오히려 위로하였다. '우지마라 호헌아, 내가 슬퍼지지 않나' 하고, 툭툭히 이야기 하는 모습이 그리 쉽게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다. 며칠 후 그는 홀연히 떠나 버렸다. 모든 미련과 그리고 잊지 못할 인연들 다 저버리고, 아주 떠나 먼 곳. 내가 전화 걸어 '어떻게 지내느냐' 고 물어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떠나 버렸다. 이 친구가 이렇게 쉽게 떠난 다음, 누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쉽게,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이 세상을 하직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내가 아는 박봉희는 아주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며 살던 사람, 누군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못 견디어 하던 사람, 또 한 가지,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쉽게 의견을 바꾸지 못하는 큰 고집쟁이이기도 했다.

그는 일평생을 열심히 살았으며, 마취과 의사로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다. 부인과 함께 세 아들들을 훌륭하게 길러 냈으며 모두 명문대 출신일 뿐 아니라 각자 자기 분야에서 평판이 좋은 한국인 2세들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아들들이 모두 결혼해서, 여러 명의 손자 손녀들을 할아버지 무릎에 안겨 드렸다. "복 좋은 할아버지" 의 조건들도 모두 채운 셈이다. 이런 노인이 팔순을 코앞에 바라보면서, 여러 날 고생 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났으니, '그 친구 복 좋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이 세상에 남아 있으니, 벌써 그 친구가 아쉬워진다. 전에 들던 전화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누그 그 짓을 아직도 하노?"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그 친구 전화를 바로 받지 안했을 때 들던 편지이다.

친구 명복을 빕니다. - 박호현(58)

### 고 송요섭(58) 선생님 추모



송요섭 박사님은 1927년 5월 11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부친 송하주씨와 모친 고화순씨의 외아들로 태어나시고 2012년 8월1일 85세를 일기로 Des Moines, Iowa에서 소천 하셨습니다. 모친 고화순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귀한 아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따라 Joseph(요섭)이라고 이름 하였습니다.

박사님은 1946년 3월 38선을 걸어, 월남하시고, 1950년에 의과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 전쟁 중에는 육군의 군의관으로 복무 하였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암 연구의 이상을 간직하며, 1952년 Harold Stewart 박사(NCI)와 Douglas Sprunt (Institute of Pathology) 박사의 초청으로 Memphis, Tennessee에 소재한 주립대학 병원 John Gaston Hospital에 레지던트/강사로 임명 되었습니다. 1956년에 병리 보드에 합격하고, 같은 해에 US Public Health grant를 받고, Rhode Island로 이주하여, Cervical Cytology screening program에 참여하여, cytology screening 교육에 힘 쓰셨습니다. 1961년에는 다시 University of Arkansas 병리학 부교수로 임명 받았으며 1965년에는 Des Moines, Iowa의 Mercy Hospital의 병리과장으로 취임하고, 1981년 chief of Medical Staff를 거치며, 1993년 은퇴 하셨습니다. Mercy 병원의 병리과에서는 병리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훌륭한 병리의사들을 많이 양성하였고, 서울대학교와 타 의대 출신의 여러 병리의사들이 함께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송요섭 박사님은 여러 권의 책과 다수의 논문을 쓰셨으며, 그 중에 Pathology of Sickle Cell Anemia는 1972년 Martin Luther King Jr. Medical Achievement Award를 수상 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자서전 Beyond The Horizon 을 출간 하였습니다.

송요섭 박사님은 미망인 송금산 씨와, 영애 Patricia와 사위 Chris, 아들 Jeffrey와 며느리 Mary, 그리고 두 손녀와 두 손자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이 간략한 고 송요섭박사의 일생은 2012년 8월 18일에 Des Moines, Iowa에서 거행한 추도식에서 배부된 고인의 회고록에서 줄인 것 입니다. - 김현철(63)

### 고 朱一 兄 서거 1 주년에 바치는 글

격변의 시기와 그에 이은 조국의 비상한 과도기의 와중에서 1950년 5월에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였다. 젊은 꿈을 안고 그때 朱 兄은 모교 대학 병원 제2내과(감동의 교수에, 그리고 나는 제4내과(장경 교수에 입학하였지만 무정하게도 두 달도 못 되어 우리들의 꿈은 간데없이 산산 조각이 났고 한국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었다.

朱 兄은 북괴의 남침이 시작된 날 대학병원에 계속 나가다가 공산군에게 끌려나가 결국 UN군의 포로가 되기까지 하였다. 수복된 뒤에는 朱 兄은 국립방역연구소 근무에 이어 가톨릭 의대에 기생충학 교실을 창설하였고 학술 연구와 후진 양성에 공헌하였다.

朱 兄은 국내외에서 꽤 디스토마 임상학계의 권위자가 되었고 또 그 당시 한국 최초로 기생충학 교과서를 저술 하신 창설자이다.

그 동안 朱 兄과 나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왔다. 대학 동기 동창이면서도 우리들은 기구한 운명에 놓여 전쟁 동안 군의관으로 총동원 되었을 동안 수년간은 서로 전연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반가운 운명으

로 그 뒤에 서울에서 가톨릭 의대 성모 병원에서 나는 내과에 朱 兄은 기생충학 주임교수로 들어오게 되어 반가웠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도 묘하게 동반자가 되었다.

같은 교수진에 있을 당시 1964년 12월에 똑같이 정일천 교수님을 대부로 모시고 가톨릭교회로 입교 하였다. 두 동강이 난 조국의 정치 현실이 지극히 불안정한 1960년대 후반기 사정은 그 이전에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로 하여금 미국 이민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한 세대나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내과 임상의로써 가야 할 길을 용감히 걸어왔다.

적성에 맞는 연구 교수 생활을 단연히 접고 미국에 이민 온 이후에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하여 묵묵히 개업의로써 모든 정성을 바쳐 왔다. 朱 兄은 명석한 두뇌에다 물질 욕에 매이지 않고 성품이 대범하고 온정이 넘치며 항상 웃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친구였다. 치밀하고 남달리 조직적이며 세밀한 친교의 덕목을 겸비하고 있었다.

1993년에 저술한 그의 자서전: "변천의 70년" 에 담겨진 생애의 시기 별로 지극히 세밀하게 적어 놓은 人名錄은 경의의 대상이었다. 내가 Maryland에 이사 온 1998년 이후 朱 兄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우리가 이사 온 이후에는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베풀어 주었다.

하나 밖에 없었던 동기생 朱 兄을 잃은 나는 허전한 마음을 어찌 달랠 길이 있으랴.

인생은 有限한지라 이제 朱 兄은 천명에 따라 85년에 걸쳤든 나그네 길을 접고 지극히 사랑하던 부인과 세 자녀, 다섯 손자 손녀, 그리고 두 증손자를 남겨 두고 천국 낙원을 바라며 먼 길을 떠난 것이다.

그 먼 길 부디 평안히 가시구려. 2012년 10월 4일 - 나수섭(50, 메릴랜드)

### 고 宋堯燮 兄 영전에 바치는 추도사

宋 兄과 나는 1945년 4월에 시작하여 의학도의 길에서 동반자가 되었다.

8 15 이후 격변의 과도기 중에 우리는 38선을 넘어 왔고 이어진 고난의 역경을 극복하면서 제2의 생애를 개척하였지.

宋 兄은 평양이 내 놓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서 명석한 두뇌에다 투지만만하여 의대 학생 시절부터 병리학 교실에 적을 둔 남달리 학구열이 강했던 모범생 이었다. 비탄의 한국 전쟁 중 에는 육군 군의관으로 전선에서 투쟁하였고 1952년 유례없이 이른 시기에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병리학 레지던트를 하면서 MS 학위를 Tennessee 대학에서, 그리고 이어서 Arkansas 대학 MD 학위를 정복하였다. 암 세포학(cancer cell cytology) 영역에서 다년간에 걸치는 괄목할 만한 연구 활동으로 학계에서 알려지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고 다수의 전문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宋 兄은 Des Moines, Iowa의 이름난 Mercy hospital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면서 대학 교수의 임무도 함께하였다.

경탄을 마지않을 필치로 엮은 자서전 (Beyond the Horizon-a Pathologists Life)은 1994년에 미국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 영입되는 영예를 입었다.

안타깝게도 작년 12월에 전화로 1월에 동창회에서 만나 크루즈를 함께 가고 권유한 통화가 우리의 마지막 해후가 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人生은 無常한지라 이제 宋 兄과 나는 유명을 달리 하게 되었으니 가슴 아프다.

宋 兄이 일생을 통하여 믿고 살았던 대로 순례의 여정에서 착실하게 걸었던 나그네 길을 이제 훌훌 털고 광명이 넘치는 영생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부디 평안히 가소서. - 나수섭(50, 메릴랜드)

##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2012-2013 장학금 수상식 예정 공고

#### 동부:

서울의대미주동창회 대뉴욕지부 Annual Ball  
일시: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장소: Teaneck Marriott at Genpointe  
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 서부:

서울의대미주동창회 남가주지부 Annual Party  
일시: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Oxford Hotel  
Dynasty room, 745 S. Oxford Ave, LA CA 90005

이 장학금 수상식에는 김태웅(63) 장학금은 2명의 학생이, 송관호(64) 장학금은 2명의 학생이 수여 받게 되며,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장학금은 5명의 학생이 수여 받게 됩니다. 아래는 김태웅 장학금과 송관호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의 감사편지입니다.

### 김태웅(63), Mrs. 송관호(64)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Dear Dr. Taewoong Kim,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so much for granting me with the 2012-2013 Taewoong Kim Scholarship. I was overwhelmed with gratitude as I opened up the email as soon as I stepped out of my anatomy lab practical exam. It is humbling to learn that my story has compelled the committee to invest in my education and career. This generous gift further motivates me to work hard to become a physician that would make you proud - one who selflessly and skillfully serves her patients and community.

The daunting question lurking in the back of my mind as I entered medical school was whether or not I would be able to afford my education. After being faced with a "total cost of attendance" that more than doubled my single mother's annual income, I had been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how I would support myself while my family would be unable to do so. Thanks to this extremely generous scholarship, a large part of this burden has been lifted.

I will not let your investment be a waste by any means. I plan to do my best academically and pursue opportunities to serve my community ?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By volunteering at student-run clinics at UC Davis, actively participating in global health initiatives and other means of service, I will strive to be a great representation of the type of medical student your organization supports. I deeply appreciate this solid investment you have made in my future. I hope to one day be in a position where I can do the same for

others in my current position. Thank you for believing in me.

Sincerely,  
Erin Lee / UC Davis School of Medicine

Dear Mrs. Kenneth Song,

I am so honored to be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Song Scholarship. Thanks to your generous support, my financial difficulties have lessened and will even support me next semester when I am studying abroad to France, Italy, and Spain.

Even though financial challenges made things a little tough, it has more importantly made me realize the value of a college education. I dreamt of becoming a teacher one day ever since I was young and without scholarship patrons like you, there would be many students such as myself unable to pursue the career they've dreamed of.

St. John's University offers one of the finest programs in Education and I consider myself fortunate to be financially stable due to your generosity. I will work harder than ever now and try to become a role model to people in the future. Once again, I offer my sincerest thanks for your continued generosity to the Song scholarship.

Sincerely,  
Christine Hong

紙上法醫



그가 맨 끈

노용면(55, 대뉴욕)

뉴욕시의 보석상 중심지인 47번가에 있는 어느 가게 주인이 지하실 창고에서 살해되었다. 그의 머리 뒤에는 큰 열창이 하나 있었고 목은 전화줄로 꼼꼼히 매어져 있었다. 보석들을 두었던 선반들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많은 귀중품들이 없어진 것 외에는 아무런 소동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가게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비상경고 장치는 꺼져 있었다. 경찰은 그 사건의 범인이 '내부 인물' 이라고 당장 의심했다. 그런데 가게 직원들과 그곳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을 철저히 심문해 보았으나 아무런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보석상 주인은 유대계 인물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이 경찰 수사가 늦다면서 떠들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그가 가해자와 싸웠다고 보이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뒤에 숨어 있다가 그의 머리를 친 것 같이 보였다. 그런 후 그의 목을 전화줄로 묶은 듯 보였다. 그의 머리를 둔기로 갈린 것 같은데 그 무기는 현장에 없었다.

그 전화줄 묶음이 내 눈에 매우 신기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목에서 제거했다. 줄이 묶인 앞부분은 그래도 잘 유지해야 했길래, 줄의 뒷부분을 우선 잘랐다. 묶인 부분을 잘 검사하니, 그곳에서 5cm 길이의 머리털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짙은 갈색이었다. 피해자의 머리는 백발이었다. 사람마다 끈을 매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그

것이 특이했다. 나는 6.25 전쟁 때 해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줄 매기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 정확한 줄 매기는 해군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밧줄을 잘못 매다 생기는 참사를 생각하면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케이스에선 전화줄을 피해자의 목에다 한번 돌린 후, 줄 끝들을 한번 매고, 그 매고 난 줄의 긴 쪽을 목에 돌린 줄 끝 부분에다 두 번 감은 후, 두 줄 끝을 단단히 매고 있었다. 이것은 줄 매듭이 미끄러져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목재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묶음은 왼손으로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교살 당한 사람에서 보는 목 묶음은 급작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어수선하게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묶음이 참으로 정밀하고 특이했다.

나는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내 사무실에 불러놓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별로 놀라워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더 '뚜렷한' 법의학적 증거를 받기를 희망하는 눈치였다. 법의수사에서 뚜렷한 증거들이 처음부터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수사팀이 서로 협력하면서 증거물들을 찾아내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 친척,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 질문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면담을 못한 사람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는 얼마 전까지 피해자의 보석가게에서 일하던 앤디라는 청년이었다. 앤디는 플로리다주에서 여행을 하는 도중이었기에 경찰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가 뉴욕시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다. 경찰이 그를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그가 플로리다 주로 떠난 날이 바로 사건이 발생한 날과 일치했다는 사실 외는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다.

담당 형사가 내가 제공한 정보들을 가지고 앤디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매일 같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청소회사에서 쓰레기를 걷어가는 날 아침, 앤디의 집 앞에 쓰레기통 하나가 나와 있음을 보았다. 경찰이 가만히 그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 쓰레기를 담은 비닐 주머니가 두 개 있었다. 형사는 그 주머니 하나를 재빨리 꺼내서 그것을 묶은 모양을 조사했다. 내가 그에게 들려준 묶음새를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왼손잡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도 있었다. 보석상에서 일하던 앤디의 깔끔한 솜씨가 그대로 보였다. 아마도 그가 늘 하는 묶음새인 듯 보일 정도였다. 경찰이 자기 사무실에 돌아와 앤디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오른손잡이인지 아니면 왼손잡이인지를 물었다. 그가 자기는 왼손잡이라고 대답했다.

집 밖에 내어 놓은 쓰레기에 대한 책임은 미 주마다 법이 다르다. 뉴욕주에서는 청소회사에서 쓰레기를 가져가지 전까지는 그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비록 그것이 집 안에 있던 집 밖에 있던, 집 주인이 그 쓰레기에 대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주인 모르게 남의 쓰레기를 뒤져 보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하와이 주에서는 쓰레기를 밖에 내다 놓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그 전화줄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과연 앤디의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었다. 그 머리카락을 앤디의 혈액형과 비교하는 검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앤디는 혈액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기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

다. 경찰이 판사를 찾아가서 법적 명령을 얻으려 했으나, 판사 역시 그 청을 거절했다. 앤디가 의심을 받을 만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서 혈액 표본을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앤디에게서만 그것을 요구한 이유는, 그가 묶은 쓰레기 주머니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경찰이 앤디의 혈액 표본을 얻지 못해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신문기자가 큰 기사를 썼다. 경찰이 여러 사람들을 심문했지만 아직 아무런 증거도 못 찾아냈고, 끝으로 한 사람을 조사 중인데 그가 경찰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기사였다. 그쯤 되니, 피해자의 가족들도 앤디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드디어 앤디가 혈액 검사를 받겠다고 그의 변호사를 통해 승낙을 했다. 아니다 다를까, 그 머리칼이 그의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판사가 그의 집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가 앤디에게 혹시 귀중품들을 은행에다 보관하고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은행에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개인 비밀 서류들이 있기에 그것을 남에게 보여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형사가 급히 법정에서 연락하니, 판사가 경찰이 그의 개인 서류들 외에는 다 봐도 좋다고 명했다. 은행에 있는 그의 보관 박스는 보통 사람의 것보다 세 배 정도 컸다. 그 속에서 도난당한 보석들의 대부분이 발견되었다.

내가 애초에 발견한 아주 희미한 실마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자의 목을 묶은 모양새가 바로 그것이었다.

Reference:  
Yong-Myun Rho: Diagnosis of Asphyxial Deaths (60 minutes tape), The Tape Library at the Office of District Attorney, Bronx County, NY 1978

동병상련(同病相憐)

정준기(77, 서울)

나는 고창순 선생님을 평생 은사로 모시고 그 뒤를 밟아왔다. 또한 일생을 사는 동안 우연히도 비슷한 병을 같이 겪어왔다. 이것도 기막힌 인연의 하나인지 모르겠다. 병을 치르는 동안 서로 동정하고 위로하면서 부자같이 가까워졌고, 나는 선생님의 은덕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2005년 내가 초기 위암을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에 고 선생님은 마치 자식이 병치레 하는 것 같이 돌보아주셨다. 2004년 연말, 이명철 선생님의 강권으로 강남검진센터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중 우연히 위암을 발견하였다. 2년 반 전에 소화기내과 송인성 선생님이 위 내시경 검사를 해주셨으나 당시 이상소견은 없던 터였다. 그 사이에 자라난 암으로 생각되었으나 크기가 2cm 이었고, 내시경 소견 상 진행된 위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우리 집안은 물론, 병원과 해의학과 교직원이 모두 놀랄 만 한 사건이었다. 특히 암의 위치가 위 천장에 있어 위장 전체를 절제하여야 될 상황이었다. 전체를 떼어내면 후유증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다. 일반의과 양한광 선생이 집도의로 결정되고 연말연휴가 지난 1월 초에 수술하였다.

세 번의 암을 이겨낸 고 선생님은

수술 전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정신적으로도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나는 위암의 진행 정도가 걱정이 되었고 또한 수술 후의 통증과 체력, 정맥주사 등 의료기술에 따른 괴로움도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옛날과는 달리 진통제도 좋아졌고 L튜브, 주사기 등 의료기재도 발달되어 생각만큼 힘들지 않았다.

수술장에서 마취 전에 여러 선생님들이 찾아오고 격려해주어 고마웠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떠보니 옆에 고창순 선생님이 혼자 앉아계셨다. 경황이 없는 중에도 퇴임한 교수님이 회복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이 의외였고, 또 고마웠다. 고 선생님은 눈을 뜬 나에게 암이 초기여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안심 시켰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오래 나음직한 말씀이었다. 나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눈치 빠른 선생님은 벽에 있는 시계를 가리켰다. 마취 시작 후 두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그 정도의 시간에 수술을 끝냈으면 암이 퍼진 상태는 아니었겠구나 라고 안심하고 다시 잠에 빠져 들었다.

위를 절제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은 수술 후 나에게 여러 조언을 하셨다. 위장을 모두 절제하여 식도와 십이지장을 직접 연결했기에 처음에는 음식을 한 두 수저밖에 먹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잠을 늘려야 한다면서 토하면서라도 음식을 먹으라고 격려했다. 덕분에 점차 음식량이 늘고 나중에는 정상인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나 덩핑증후군, 위장관과민증 등 수술 후 후유증이 회복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보다 더 큰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도 이겨낸 선생님을 모델로 위안을 삼고, 선생님의 권고처럼 학내외 활동을 수술 전과 같이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래 날씬했던 나는 수술 후 체중감소가 문제였다. 수술 전에 68kg 이던 체중이 55kg 까지 빠지고는 좀처럼 회복 되지 않았다. 입던 양복은 모두 처분하거나 바지허리를 줄이고 새로 몇 벌을 장만해야 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주치의인 양한광 교수에게 하소연했더니 본래 체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대답이었다. 이유를 묻는 나에게 양 교수 말이 수술 전 날 밤 고창순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단다. 혹시 암이 퍼졌을지도 모르니 위 주위의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라는 엄명이었다. 양 교수는 열심히 70-80 개의 림프절을 떼어냈고 다행히 암의 전이는 없었으나, 위장관 림프관과 림프절이 없어서 음식 속의 지방성분을 장에서 흡수하는 길이 차단된 상태라고.

선생님이 나에게 전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수술 전 날 당사자인 나보다 더 병을 걱정하고 궁리 끝에 대책을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고는 전혀 내색도 안 하셨다.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다.

그러나 선생님이 예측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겨울부터 체중이 늘기 시작하였다. 몸속에서 새로운 위장관 림프관과 림프절이 자라 지방성분이 점차 흡수되는 것이다. 선생님이 살아 계신다면 안도하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선생님이 떠나신 지금 나는 양복바지를 다시 늘리며 그리움에 사무치고 있다.

가을나무

서윤석 (68, 오하이오)

시월이라  
달력의 한 해가 저물어가는  
높은 하늘 아래  
낙엽 하나 둘  
살며시 내려와 쌓이는 뜰에 서서  
또 한 해를 보내는  
작은 나무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하면서  
아름도 슬픔도 다 이기고 서 있는  
한 그루 나무

무르익은 붉은 열매를  
새들이 떼지어 다 먹고 가도  
불평도 없이 매년 꽃을 피우고  
질러서는 유용한 쟁기로 쓰이는  
이름 없는 나무

내가 흘린 황금색 낙엽들  
네가 서 있는 자리  
모두  
가을 햇살에 눈부시다.



# 썩갓나물의 맛, 그리고 그림(Art)



나 수 섭 (50, 메릴랜드)

지금에 와서 나는 어떤 음식도 별로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지만 어렸을 때 예는 꽤 음식을 가렸었다. 짭짤한 것과 단 것을 좋아했고 반면에 나물총류는 좋아 하지 않았다. 콩나물 보다는 숙주나물이 좋았다. 맛이 쓴 썩갓나물은 아주 질색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지 모르게 그 나물이 좋아졌음을 알고는 스스로 놀라게 된다. 良藥은 입에 쓰다 하였고 약이라고 해서 먹는 나물도 아닌데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좋아 하든 음식 중에서 싫어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동안 나의 인생 항로에 따라 겪어온 山戰水戰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언제 그랬었더냐 하는 식으로 썩갓나물도 아무 문제가 없다.

味覺은 그대로인데 어떤 ‘體內 혁명’ 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원래 그림 그리는데 재주가 메주였다. 그래서 그림 감상에도 별로 취미가 없었다. 오하이오 주에서 내과 개업에서 은퇴할 때 단골 환자였던 화학자(retired chemist) Vic Chapman으로부터 기념 선물이라 하여 받은 커다란 근대 미국 화가들의 작품집(American Impressionism)을 받은 것이 있고 또 그동안 유명 화가의 작품집도 모아둔 것이 있었다. 나의 연륜이 쌓여 지면서 전에는 관심이 없던 그림 예술 작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복이 있기 마련인 인생에서 애환을 겪어 온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자연히 나도 흥미를 갖게 되었다.

화가(Artist)하면 Vincent Van Gogh가 먼저 내 마음에 떠오른다. 그는 1853년 3월 30일 Grootzundert, Netherland에서 태어 났고 1890년 7월 29일에 Auvers, France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예술 작품 애호가 이었으며 취미로 수채화를 많이 그렸다고 한다. 반 고흐는 자기 이름이 어렵다고 하여 자기 작품은 대개 Vincent로 표시 했다. 그가 생애의 방향을 똑바로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은 예술 작품 판매상을 하던 삼촌 Cert와 동생 Theo 였다.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사기도 목사 일을 하였는데 불쌍한 사람만 보면 교회의 재산을 분별없이 몽땅 나누어 주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 어머니의 소질을 받아 타고 나왔는지 빈센트도 유년 시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 했다고 한다. Antwerp에서 수개월 동안 예술 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때의 것 이외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였고 독학으로 배워 나갔다. 삼촌 Cert와 함께 일 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화가 Pissaro, Gauguin, Monet 등을 만났고 사권 일은 있었다. 결국 27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정식으로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길을 내닫기 시작했다.

그는 성품이 대단히 예민하고 무슨 일에도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정서나 사고 면에서 그는 차츰 환각(hallucination)과 망상(delusion)에 사로잡히는 일이 흔히 있게 되었다. 또 자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 발광 상태가 일어나면서도 중간 중간에는 완전한 平靜을 유지하였다고 한다. 정신병 발작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걸잡을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다가 평정을 도로 찾으면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여 막대한 분량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많은 경우

에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계속하곤 하였다.

나이 27세에 시작하여 고작 10년 동안에 2,100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860점은 유화(oil painting) 이고 1,300 점 이상의 수채화를 그렸다. 특히 그가 생을 마감하기전 60일 동안에 놀랍게도 매일 그림 하나씩을 완성 하였다. 이렇게 보면 나는 인간이 일을 하는데 성취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나 하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탄하여 마지않는다.

그의 병적 정신 상태에 관하여 150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왈가왈부하여 30개의 진단명에 도달하였는데 정신분열증, 조울증(MDI-Bipolar disorder), 알코올 또는 화학물질(Paint 등) 중독증 등이 열거되어 있다. 정신 장애는 그의 마지막 2년 동안에 가장 심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의학이 발달된 현대에 살았더라면 증상이 잘 치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가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신병 증상이 치유되는 대신에 그의 천재적 역량이 과연 그처럼 발휘되었을지는 미지수 라 하겠다. 이미 두 번 이나 애인을 구하다가 실패하고 사랑에 굶주린 삶을 살면서 격심한 우울증에 걸려 고민 하든 끝에 들고 다니는 옥혈포로 자살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라는 유서를 남겨 놓고, 가슴을 찔렀는데 이틀이 지난 뒤에 열(fever)이 나면서 동생 Theo의 가슴에 안겨 죽었다. 현대의학의 시대라면 분명히 소생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가난하고 외롭고 허전한 인생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사라져간 그 사람이었다. 그 많은 그림을 그렸건만 생전에 팔린 그림은 단 하나 였다고 한다. 별세하기 몇 해 전부터 좀 이름이 알려 지는 듯 하였지만 알갭게도 그가 세상에서 사라진지 10년 후에 가서야 그의 그림이 Antwerp, Paris, Brussels와 The Hague 에서 전시 되면서 그의 진가가 알려지게 되었다. 전시회를 이루는데 그의 어머니와 요안나(Theo의 부인)가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정신과 주치의 “Dr. Gachet 의 초상화” 는 1990년에 \$82.5 Million에 팔렸다. Vincent 대신으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후에 천재 화가로 흡모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빈센트가 주장 하였듯 이 예술가는 단순히 사물 자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 “예술가의 마음속에 흐르는 느낌” 을 그린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새로운 ‘착상’ 을 그리는 것이고 빈센트는 정신적 착란에서 일어나는 고뇌를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마음에 비추는 인간과 자연 사물들의 실재를 그려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유명한 그의 화법 ‘소용돌이 모양’ (swirls)은 마음의 병적 상태를 묘사 한 것이다. “별을 볼 때면 나는 꿈에 잠긴다” 고 하였다. 하여 그는 별의 모습을 많은 그림에 담았다.

나의 특이한 인생 항로를 지나며 여기까지 오게 된 나, 이제 노년에 이르렀으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에 잠긴다.”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노인은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 나의 구미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받아 드린다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고 갈수 있을까...?

2012년 10월 3일

# 길

이원택(71, 남가주)

길은 어디서 오나  
동쪽에서 오는 길은 오솔길  
서쪽에서 오는 길은 황토길  
남쪽에서 오는 길은 벌판길  
북쪽에서 오는 길은 돌가다길  
길은 방방곡곡에서 모여든다네

길은 어디로 가나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그리운길  
한양으로 가는 길은 꿈 많은길  
로마로 가는 길은 끝 없는길  
북망산천 가는 길은 외로운길  
길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진다네

인생길은 나그네길  
울퉁 불퉁 험난하기도  
고요 적적 괴기하기도  
시끌벅적 번잡하기도  
사통팔달 징엄하기도  
그러나 언제나 혼자 걷는길

길은 쉬지않고 굽이굽이 돌아가누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은데  
그누가 나서서 길동무 되어 줄거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러다 막다른 골목에 다치면  
다시 되돌아 간들 어찌리



# 한국인의 알코올 소비량

오태희 (64, 커네티컷)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180여개 국가 중에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2009년 현재 동유럽의 몰도바로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개인당 18.22 Liter이다. 한국은 14.80로 세계 13위이다. 한편 맥주와 포도주가 아닌 증류주에 속하는 Spirits (합성 독주의 섭취량은 세계 1위인 9.57 L 이다. 이 부문에서는 에스토니아가 9.19 L로 2위이다.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나라 목록을 드려다 보면 러시아 (4위)를 제외하면 모두 동유럽 국가인데 동양에서는 한국이 유달리 13위에 끼어 있다.

WHO에서 술 마시는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정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으나 한국인 15-18세는 술 마시는 연령이 아니라 이 통계에서 빼버린다면 한국인의 알코올 개인당 소비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WHO는 동유럽인의 평균수명이 서유럽인 보다 6년이나 짧은 주요 원인이 음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도 음주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신진대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효소의 내성에 약하여 술주정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술주정에는 아주 관대한 편이다. 오히려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하는 일이 정상이다. “아, 그 친구 술 잘 마신다.” 한 마디 해야 피차가 편하다. 무슨 실수를

해도 술 핑계는 눈 감아 주게 마련이다. 나는 술과 담을 쌓은 지 오래되고 술에는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다. 군의관 시절, 전방에서 후방으로 전출되면서 의무중대 환송파티에 나갔다가 막걸리를 주는 대로 받아 마시고 곤욕을 치르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술을 마시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술이나 마찬가지로 위장이 괴롭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간장이 또한 견디기 힘들다. ADHD (항이노졸론) 분비가 줄어들어 심한 갈증이 생기며 떨떨하던 간 기능을 저해시켜 신체의 필수적 전해질이 뒤죽박죽이 된다. 치매의 발생빈도를 높이고 필요 없이 혈압을 낮추기도 하며 필요한 콜레스테롤 분비를 감소시켜 심장혈관이 망가진다. 칼슘 흡수에 장애가 생겨 뼈의 내부가 빈 강점이 되는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암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 모든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나 통계 숫자라서 남의 일이라고만 믿게 된다. 더구나 하루 이틀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니 너도 나도 모르고 지나다가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20세기 후반만 해도 알코올은 조금씩 마시면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보다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세기가 바뀌면서 이런 경향이 사라지고 과음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눈앞에서 번쩍거린다. 과음하면, 독주는 물론 맥주나 포도주라도 건강에 별로 이롭지 않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그러나 술 한 잔에 수명이 몇 년 씩 줄어든다는 발표는 없다.

알코올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였는지 알고 싶지도 않으나 인류와 가장 오래된 친구이며 필요불가결한 사회적 윤활제이다. 항상 소수에 의하여 남용되고 다수가 즐기는 화학 음료수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알코올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 결혼 이야기

유재영 (Mrs. 김창구 71)

첫돌을 갖 지내고 뒤뚱거리는 걸음마로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큰아이가 지난봄에 서른 살 생일을 맞으면서 약혼을 했다. 전화를 해올 때마다 피곤하다, 졸리다, 돈 없다를 읊어대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LA에서 가까운 길도 아닌 샌프란시스코를 자주도 드나든다 싶었다. 친한 친구가 있는 곳이니 고달픈 레지던트생활에 친구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싶어 무심히 넘겼는데, 친구는 핑계였고 그 친구가 나가는 교회인 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었다. 그 아가씨를 위해 기도 해달라는 큰 아이의 부탁에, 얼굴도 모르는 아가씨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예비된 배필이었는지 그 아가씨가 LA로 직장을 옮겨왔게 되었고, 우리 모자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아가씨도 한마음이 되어, 꿈같은 데이트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하고 7, 8개월이 지난 때쯤인 지난 봄이었다. 할머니 손가락에 끼어있던 할아버지가 사 주신 반짝반짝 하는 반지를 가지고, (사실 그 반지는 잠정적으로 나의 것으로 접지되어있던 것인데)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뽑아주었다. 할머니의 그 반지를 아가씨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약혼을 한 것이다.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야 말로 할 수 없이 컸지만, 마음 저 은밀한 곳에서는 아들의 인생에서 엄마가 차지했던 소중한 자리를 낯선 아가씨에게 내어주고 난 후의 허전하고 빈 것 같은 묘한 심정이었다. 내놓고 말하기에는 어쩐지 어른스럽지 못한 것 같았고, 속에다 담고 있자니 공연히 심란스러워 반잠을 설치며 뒤치라꺼렸다. 안타깝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이제는 아이들 짝사랑 그만하고 나하고 놀자.' 며 등을 도닥겨주는 남편 덕에 그러저러 첫 번째 위기는 넘긴 것 같았다.

Cool한 엄마라고 치켜주는 아이들의 입바른 소리가 정말인줄 알고, 나는 정말로 근사한 시어머니, 멋진 장모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었는데 내가 보통수준도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데는 별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LA에 가서 만나 빈 사돈되실 분들은 원만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화목한 가정 분위기에다 그이와 고향이 같은 황해도 분을 이뤘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 될 아가씨는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산 시간들을 Make up 하겠다고 결혼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딸만 셋인 집이고 약혼도 했었다, 혼자 지내는 사윗감

인 우리 큰 아이를 자주 불러주시고, 대접이 얼마나 융숭했을까 싶다. 게다가 딸 많은 집안의 웃음 많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는 익히 아는지라, 요즘 한국 유행어로 '안 봐도 Video요, 안 들어도 Audio' 인 셈이다. 잠 안 오는 밤에 내 머릿속을 오가는 생각들이라는 게, 부모자식이라도 자주 봐야 정도 더 두터워지는 법인데 이렇게나 멀리 있으니 우리를 까맣게 잊지는 않을까? 사돈될 때에는 너무나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게다가 색시가 예쁘면 처가댁 기둥에다라도 질을 한단는데, 우리는 싹 잊고 그 집에만 얽어지면 어찌나, 하는 등등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잡생각들로, 평온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지내 오던 중늬은이 엄마의 신경이 온통 날을 세우고 심사를 괴롭히니 그렇게도 맛나게 먹던, 물 말은 밥에 새콤하게 익은 오이지 배어 먹는, 나만의 특별한 한 여름의 별식도 소태맛이 된다.

LA의 같은 도시에 가까이 사시는 이유로 우리 큰 아이를 아끼고 enjoy 하시는, 사돈되실 분들과 예민하게 비교하고 반응하며 시샘하는 마음과는 별도로,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는 정말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다. 선하고 시원한 눈매에 웃음을 담고, 'Mom' 하면서 안겨오면 가슴에서 올라오는 사랑으로 목 밑과 눈 뒤가 따듯해진다. 주고 싶기 만하고 사랑스러워지는 내 마음이 왜 일까 궁금하다. 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부모인 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물어대는 흔하디 흔한 비유만이 아니라도, 아마도 나를 닮은 큰아이가 사랑하는 성품이라면, 나 역시 같은 chemistry로 좋아할 수 있구나 하는 과학적인 논리가 내 생각이라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나와 아가씨의 시주에 합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을 내려주신다.

그러게 옆치라퀴치라퀴하며 마음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헤매던 틈시도 덩던 어느 여름날, 심란하면 뒤집어 엎듯이 청소하는 버릇대로 아래층 계단 밑의 closet 청소를 하던 중에,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열고 보니, 옛날옛날에 그이와 데이트 하던 시절에 우리가 주고 받았던 편지, 카드, 작은 선물들을 모아둔 박스였다. 정이 푹푹 흐르는 낫살편지들 말고도, 그이가 오일 페인팅으로 직접 그려서 만들어준 달력, 내가 손뜨개로 만들어 준 아기 곰인형, 한때 헤어지자고 내가 보낸 편지, 그럴 수 없다고 보낸 그이의 답장편지에는 내 눈물자국인지 군데군데가 누렇게 색이 변해 있었다. 30년을 더 넘은 그 시절이 영화의 장

면들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중에서도,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의 집과는 정반대 방향인 후암동 우리 집 앞의 허름한 다방, 이름도 잊히지 않는 '샌터' 다방에 앉아서, 빨리도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커피 한 잔을 아껴가며 마시고, 그저 서로의 두 손만 조물락거리며 바라만 보다가, 통급시간 놓칠세라 피곤한 몸으로 허둥허둥 버스에 오른던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시절에 시어머니가 그 일을 아셨다면, 당신의 귀한 아들 고생시키던 내가 얼마나 미우셨을까 싶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를 실감한다. 애뜻하고 풋풋하던 우리의 연애시절을 기억해 내고, 큰 아이는 다름 아닌 그 옛날의 나의 애인을 꼭 빼어 닮은 우리 아들이었구나, 그이도 바로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떠오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마음이 붉은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난 후, 대학과 의과대학 그리고 수련의 과정 내내 집과는 멀리 떨어져서 지냈으니, 화목한 웃음과 사랑이 있는 가정에 자주 불러주시고 먹여주시는 사돈되실 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라는 깨달음도 왔다. 자기 할 일은 잘하지만, 딱 부러지고 까다로운데 가 있는 큰아이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주는 며느리 될 아가씨도 고맙고, 그런 사람 찾아내서 제 사람 만든 큰아이가 대견하고 신동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만한 게 남편이라고 옆치라퀴치라퀴 거리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 미운털 박혀가는 마누라를, 빙긋이 웃으며 '이제는 아이들 그만 바라보고, 우리 둘이 놀자' 해주는 남편이 제일 고맙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진짜 시어머니가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큰아이가 혼자였을 때 보다 한결 부드러워지고 다정해진 것이나, 사려 깊어진 것이나, 아들보다 밝고 보드라운 며느릿감 아가씨의 목소리 자주 듣는 일들이 기쁘고 고맙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애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배필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는 지금이 가슴 벅차게 감사할 뿐이다.

(2003년 한여름에)

후기: 이 글은 9년 전 2003년 여름, 아들 약혼 후에 적어 두었던 글입니다. 그 후 결혼 하고 사랑스러운 손녀 둘을 우리에게 안겨주었고, 그때도 마음이 가던 며느릿감 아가씨는 해가 갈수록 사려 깊고 정 많아지는, 착하고 예쁜 내 며느리가 되었다. 그 시절에 내가 시샘했던 사돈댁은 약사 딸을 두신 연고로, 두 아이를 키워주시는 수고로 애쓰고 계시는 죄송하고도 감사한 사돈댁이 되었습니다.

## 默默地

이한중 (65, 미시간)

默默地  
일요일 아침을 맞는다.  
나의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던 간에 상관없이  
默默地 늙어가는  
이 몸둥이를 살펴본다.  
그리고默默地 매순간 뛰고 있는  
나의 심장을 의식해본다.

默默地  
이 지구를 내려다보던  
어젯밤 유난히 컸던  
둥근 달을 기억해본다.  
인간을 창조하고  
수천 년, 수 만년,  
默默地 내려다보시는  
신을 생각해본다.

默默地  
일요일 새벽녘에  
기도하는 저 수녀들,  
저 신부들을 생각해본다.  
오늘 일요일  
교회마다 성스러이 받들어 논  
십자가의 예수  
수없는 찬송가와 온 갖가지  
설교들에 아랑곳없이  
默默地 내려다보시는  
그분의 河海같은 마음을  
헤아려 보려한다.

오늘같이 초록으로 풍성한  
여름날에도  
지난 겨울의 음침한 날들의  
기도속에서도  
화창한 봄날의 꽃동산에서도  
빛나는 가을 단풍들의  
산골짜기에서도  
그분께로 가는 길은  
오직 묵묵할 뿐이로다.

오늘 일요일  
默默地 맞는 이 성스러운 하루  
이 세상의 귀 아픈 시끄러움,  
인간들의 이해 못할  
천방지축의 어리석은 행동들  
아랑곳없이,  
오직 그분께로 가는 길만을,

오직 내가 순례하는 이 지구,  
저 달과 별들의 이 우주,  
내가 삼십여년 살아온 이곳,  
저 나무들, 저 앞뜰 뒤뜰의 꽃들,  
나를 키워준 부모님, 조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아내, 내 자식들, 손주들,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 준  
친구들, 은인들,  
오,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그 많은 내가  
케어하는 사람들, 인간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그분의  
선물들인가를.

오직,  
오직,  
默默地 생각해본다.  
默默地 감사해본다.



### 농담 골목

한국에서 김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 동해안인지, 서해안인지, 아니면 남해안인지? 모두 아니예요, 그것은 공중 목욕탕입니다. (변)

신혼부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방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누라를 보고 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그는 자기의 전 애인이며, 자기와 갈라진지 2년이 되는데 그동안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그가 당신과 갈라진 것을 오랫동안 축하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라고 했습니다. (변)

아내: 여보, 만약 10분 뒤에 세상이 망한다면 당신은 뭘 하겠어요?  
남편: 응, 10분밖에 안남았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과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지.

아내: (곰곰히 생각하더니) 그럼 남은 9분 동안은 뭘 하죠? (이덕송)

의사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침대에서 별로 신통치 않다" 고 하니 남편 왈 "당신도 별것 없다" 고 했다.

남편이 낮에쯤 정정하려고 부인한테 전화를 하니 아주 한참있다가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받느냐 하니 "침대에 있었다" 는 부인의 대답에 그러면 침대에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구치니 부인이 말하길 "제2의 의견을 듣기 위한 실습중 이었다." 고 했다. (행)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이불속에 들어가니 마누라가 "당신이에요?" 라고 묻더라, 물라서 묻는걸까? 아니면 판 놈이 있는걸까? (김세)

# 2012년 여름의 추억을 위한 수필 세 개

서 랑 (69, 대뉴욕)

## I. 8월이 가기 전에

가을이 오기 전에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다. 대한민국이 메달 순위 종합성적으로 전 세계 205 국가들 중에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다음으로 5등을 했다는 기쁨에 또다시 흠뻑 취하고 싶다.

막판에 축구 4강전에서 일본을 이긴 태극전사들의 환호성의 짜릿한 감흥을 잊을 수 없다. 유도과 여자 태권도와 체조 같은 종목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활동이 눈부셨지만 나는 유독 양궁과 사격과 펜싱에 눈길이 갔다.

양궁(洋弓)이라는 어려운 한자말을 영어로 'archery' 라 한다. 이 말은 13세기경 고대 불어의 'archier' 와 라틴어의 'arcus'에서 유래했다. 활처럼 생긴 아치형의 다리나 건축구조를 뜻하는 'arch'도 같은 어원에서 왔다. 일직선의 화살과는 달리 반달이나 눈썹 모양인 활은 어딘지 여성적인 느낌이 든다. 화살이 과녁을 명중시키는 묘기는 활줄과 시위의 부드러움이 극도로 긴장하는 힘의 결과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장장 28년에 걸쳐 7연패의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자못 사랑스럽다.

사격(射擊)을 심검제도 'shooting'이라 한다. 이를 테면 'shoot the breeze (산들바람을 쏘다?)'는 잡담을 한다는 뜻이고 그냥 'Shoot! (싸!)' 하면 누가 할말이 있다고 할 때 '말해 봐!' 하는 슬랭이다. 이 표현은 근래의 우리 속어로 '오늘은 내가 쏜다' 가 회식비를 자신이 지불하겠다는 의미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축구에서 '골인' 하기 전에 공이 쓴 살갓이 날아가는 동안 중계자가 "슈웃" 하고 소리치는 순간도 사뭇 통쾌하다. 어떤 물체가 목표물에 도달하는 장면에는 은연중 성적인 암시가 들어간다. 남녀간 육체관계의 어느 시점에서 'Did you come?' 할 때처럼 양키들은 '왔다' 는 개념을 쓰지만 우리는 속어로 '췌다' 고 하는 점도 흥미롭다.

펜싱 종목에서 본 대한민국의 개인전과 남자 단체 팀의 활약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펜싱을 순수한 우리말로 '칼 싸움' 이라 옮길까 하다가 잠시 주춤한다. 왜냐하면 'fencing' 은 'gun fight (총 싸움)' 에서처럼 상대를 치명적으로 해치는 뜻보다는 자신을 'defense (방어)' 한다는 뉘앙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펜싱은 14세기 초엽에 자기 방어, 즉 'self-defense' 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 1580년대에 들어서야 'sword fighting (칼 싸움)' 이라는 뜻이 파생됐고 급기야 1620년에 'fence' 는 도둑의 침입을 막는 '담' 이라는 뜻으로도 변했다. 그래서 사격에 비하여 펜싱은 여성적이기도 하다. 한국 여자들의 살림 잘하는 기질이 펜싱을 잘하는 재능으로 진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 보았다.

일본을 패배시키고 우리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축구이야기도 해야겠다. 'soccer' 는 워낙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Football Association' 의 뒷글자를 약자로 'Assoc.' 라 하고 거기에 '~er' 을 붙인 후 'a' 발음을 생략한 말인데 역사상 정식으로 체계를 갖춘 스포츠로는 단연 영국이 종주국이다. 그 영

국을 이번에 연장전을 거쳐 승부차기로 5대 4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긴 것이다.

'Alive and kicking' 이라는 관용어가 있다. 자궁에서 태아가 발길질을 하듯 사람이나 사물이 펄펄 살아있다는 표현이다. 직장 친구가 'Koreans are alive and kicking!' 이라 하는 말을 들었다.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여, 부디 원기 왕성하게 번성하라.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체력과 노력의 결실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라.

<http://blog.daum.net/stickpoet>

- 뉴욕중앙일보 2012년 8월 27일 서랑 컬럼 <잠망경>으로 게재

## II. 오빠 강남스타일!

2012년 여름에는 런던 올림픽 뉴스 말고 기분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우리 한국 가수 '싸이 (Psy)'가 인터넷의 유튜브에 올린 '강남 스타일'이라는 케이팝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유쾌한 난리였다. 당신도 알겠지만 'K-Pop'은 'Korean Pop Song'의 약자로서 순수한 우리말로 '한국대중가요'다.

<강남스타일>의 가사를 유심히 들었다. 강남이라는 지역문화가 내세우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노래 끝 부분에 나오는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놈 / You know what I'm saying?" 이라는 대목에서 강남이 풍기는 우월의식에 픽, 코웃음이 나왔다.

'style'은 13세기경 고대 불어의 'estile' 과 라틴어의 'stilus'에서 유래했는데 말뚝 혹은 막대기라는 뜻이었다. 같은 말 뿌리에서 'stake'나 'stick' 이라는 단어들도 나왔다. 그리고 레코드 플레이어의 바늘이나 지진계의 떨리는 바늘 따위를 스텔링도 비슷하게 'stylus (스타일러스)'라 한다. 이 말을 한자로 첨필(尖筆)이라 하는 것 또한 새삼 배웠다.

소위 문화의 첨단(尖端)을 걷는다거나 첨예(尖端) 시인이나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뽕족할 첨'가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스타일'은 뽕족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둔하고 뚱뚱한 것은 스타일이 없는 법. 머리가 좋은 사람은 생각이 예리하기 마련인데 영어로 똑똑한 사람을 'sharp'하다 하고 우리말에서도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찾을 때 '무슨 뽕족한 수'가 없을 까? 한다.

'style'을 영한사전에서 찾아 봤더니 방식, 형식, 양식 말고 그냥 영어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타일'이라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싸이가 펄떡펄떡 말춤을 추며 전 세계를 매혹시킨 노래 제목을 '강남 스타일'이라 하지 않고 '강남 방식'이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았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라. 싸이가 "오빠 강남 방식!" 하고 소리치며 노래를 시작하는 장면을... 그쯤 되면 친근한 오빠보다는 고리타분한 '꼰대' 냄새가 나지 않는가?

'강남 형식'은 어떠냐고? 당신은 시방 '모양 형(形)'자를 써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영어의 'shape'에 준하는 개념을 피력해 보는 건 어떤가. '모양'을 순수한 우리말로 '꼴'이라 하는데 내친 김에 '강남 꼴'도 괜찮을

지 모르겠다. 뭐? '강남 꼬락서니'도 나쁘지 않다고?

'강남 폼'은 어떨까. 기왕에 영어가 우리말을 무차별하게 먹어 들어가는 시대추세라면 이제는 아주 고전적인 우리말이 돼버린 폼(form)도 '스타일'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들린다. 입은 뻐뻐했어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 "오빠 강남 꼴!" 보다 "오빠 강남 폼!"이 더 모양새가 나지 않은가.

'form'은 13세기 초엽의 고대 불어 'forme'와 라틴어의 'forma'에서 기원한 단어로서 모양, 윤곽, 생김새라는 뜻으로 한자로 '모양 形'이 아닌 '모형 型'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바로 이 말에서 formula(공식), format(체제), formal(공식적인), inform(알리다), reform(개정하다) 같은 단어들도 태어났다.

또 있다. 'uniform'은 형용사로 한결 같다는 뜻이면서 명사로는 제복이라는 말이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군인처럼 유니폼을 입지는 않았지만 지축을 울리며 경중경중 말춤을 추는 동작 하나하나가 한결같이 즐기차고 활기차다. 상층에 상층을 거듭하는 한류의 에너지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http://blog.daum.net/stickpoet>

- 뉴욕중앙일보 2012년 9월 12일 서랑 컬럼 <잠망경>으로 게재



## III. 죽부인과 섹스토이

...어깨와 다리를 안온하게 펴고 기대면 /내 이불 속으로 정답게 들어오네 /비록 다소곳이 남편 밥상 시중은 들지 못하지만 /다행히도 방안의 내 몸을 독차지하네...

고려 시대 시인 이규보(1168~1241)의 시 「죽부인(竹夫人)」 일부를 번안해 보았다. 죽부인이란 손가락 정도 너비의 대나무를 열기설기 엮어 원통 모양으로 만든 옛 침구를 일컫는다. 그것은 요사이처럼 무더운 여름 밤에 품고 자면 몸에 통풍이 잘 되어 잠이 잘 왔던 관계로 남정네들이 즐겨 쓰던 피서 도구였다.

죽부인은 영어로 'bamboo wife'라 하지 않고 'Dutch wife'라 한다. 'Dutch wife'는 워낙 옛날 네덜란드 상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드나들며 그곳에 현지처를 두었던 관습에서 생겨난 말이었지만 현대에는 얼추 애첩이라는 뜻의 속어다. 우리 선조들의 애첩은 살아 숨

쉬는 여인이 아닌 대나무로 제조된 도구였다.

일본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섹스용 인형을 'Dutch wife'라 부른다. 대략 5천 달러 남짓한 가격으로 시판되고 있으면서 구글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실물대의 성인용품이다.

네덜란드(홀란드) 사람을 뜻하는 'Dutch'가 슬랭에 자주 등장한다. 'Dutch pay'는 음식 값을 각자각자 부담하는 경우이고 남에게 엄숙하게 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Dutch uncle (홀란드 아저씨?)'라 한다. 마음이 나약한 남자가 술의 힘을 빌려 발휘하는 용기라는 뜻의 'Dutch courage'도 생각해 보면 네덜란드 국민을 크게 칭송하는 내막은 아닌 듯싶다.

영국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싸잡기 좋아하고 프랑스 사람들도 알잡아 본다. 예컨대 그들은 쌍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Excuse my French!"라면서 금방 자기가 내뱉은 말이 영어가 아니라 불어인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 만국공통의 남녀 애무행위인 'French kiss'도 프랑스 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름한다. 또 있다. 여럿이 모인 파티 같은 데서 온다 간다 인사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행동을 'French leave'라 하는데 그것도 예절을 존중하는 영국식 우월감이 듬뿍 깃든 말이다.

'Too many chiefs and not enough Indians'라는 잠언은 높은 사람들도 많고 실무자가 없다는 뜻인데 이 말에서 인디언은 직책이 낮은 신분을 대표한다. 여름이 다하기 전에 한 번 더 기승을 부리는 늑대위 'Indian summer'도 구질구질함의 대명사로 들리고 인디언들은 'Indian giver'에서처럼 남에게 선물을 줬다가 다시 빼앗고자 하는 치사한 사람들로 묘사된다.

중국도 영어의 비판적 시선을 벗어 나지 못한다. 우리말로도 '호떡집에 불 났다' 하지만 'Chinese fire drill (중국인들의 소방훈련)'이라는 속어 또한 시끄럽고 떠들썩한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한다. 반면에 'Chinese whisper'는 속삭이는 중국인이 아니라 터무니 없이 와전된 소문을 의미한다.

며칠 전 (2011년 7월 19일) 'BBC Magazine' 인터넷 판에 영국인들이 불평하는 미국식 영어, 'Americanism' 중에서 가장 괴심한 50개의 본보기가 실린 것을 읽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잘 지낸다는 뜻으로 'I am good'이라 하는 대신 'I am well'이라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투덜댄다.

언어의 변천사는 인류 역사의 발자취다. 고리타분한 영국식 문법과 격식을 가차없이 깨뜨리는 미국영어가 이제 지구촌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변방에서 이규보의 서늘한 죽부인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한어름에 섹스 토이로 둔갑하고 있는 광경을 본다.

- 뉴욕중앙일보 2011년 8월 10일 서랑 컬럼 <잠망경>으로 게재

##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종교적인 내용은 사양합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 아래한글, Worl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 모든 산문은 원고지는 200자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로 해 주십시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 회비, 후원하신 동문

2012년 5월 31일 ~ 2012년 10월 10일

- 1948 한용현 최원로
- 1950 나수섭
- 1952 박종식 김정준
- 1955 양거영 김용선 노용면 박병원
- 1956 박상기 조동립 김신형 신명수 김익창 도상탁 유호준
- 1957 차봉회 이동성 임종원 김양호 한성택 임종식 정현복 이동성 윤 찬 임종원
- 1958 김해암 임영신 최정희 김백년 이동목 김시한 이운순 이종용 송세엽 김숙희 배영섭 이장섭 김순옥 이종국 이운순 김부근 이종용 이동립 김기태 박용화 이만택 박호현 신상균 최창승
- 1959 최대환 반응균 최용천 이종수 김은섭 한달수 최해숙 신한수 김병구 서경화 김병석 정태진 최용천 이영모 반응균 김용덕 임낙중 강재룡 신한수 김은섭 한성업 나걸진 이종수 이교락 방석운 강상진
- 1960 이순환 임필순 박명근 선우문 박정우 전희근 이광준 박형순 임필순 이상일 임종원 김택경 김관주 송영조 한성수 박형순 이덕승 박정우 박병돈 조재동
- 1961 최지원 고의걸 박준환 차철준 최용성 박호성 황현상 이준우 최태순 김영철 강창욱 박호성 이재두 박승균 이희경 박준환 김영기 서희열 장성환 강창욱 이해원 한수용 김성준 김영환 이희백 양명교 강세부 황현상 최지원 김영철 고의걸 정철용 안창현 이한수 이재승 조은순 이재승 조은순
- 1962 이상원 권익현 민경환 구정용 김석식 이상무 김호균 윤홍철 정 태 이기범 김한중 박찬형 최영수 박진수 이용길 문상규 김호균 오태요 한상호 박종건 이영웅 송영두 구정용 남성희 장병호 조명호 이석우 김한중 윤홍철
- 1963 윤영옥 추재욱 한광수 김정일 김택수 이기환 권영조 김광섭 김주용 고영희 김태형 이범세 조한원 이능석 박세록 노인규 선종철 김태형 김현학 윤진수 김계윤 이범세 김갑중 장인호 임춘수 정관호 마동일 조열하 김현철 신경호 신영규 권영재 이종두 이승현 김정일
- 1964 이용만 이흥표 정유석 이종성 박세준 주의돈 홍준표 김태환 방 준 전희택 이종오 오유섭 김용두 김원영 이우찬 허선행 라찬국 이주영 유창남 이종성 양운택 박세준 홍선경 강창만 조성준 유 강 임대륙 신두식
- 1965 임현재 지영환 황규정 장재찬 조성구 서좌일 채무원 이재진 김건언 이한승 김욱현 조성구 박수안 손광호 이범석 채도경 이정희 구경희 홍수용 이화성 한재은 전영균 전영균
- 1966 민발식 이명희 황 철 조의열 이영일 장한교 궤일성 김용재 김경세 조관상 남궁승 김은한 허서룡 김충규 이성근 최순제
- 1967 임 번 김태웅 이정화 이소희 방정화 박정일 이태석 박정일 이준식 김성철
- 1968 유우영 고남규 서관우 차재철 황훈규 김 철 최 철 안세현 김희주 한민원 서윤석 홍광신 송창호 박정식 김영남
- 1969 변영석 임용규 이지훈 김병오 이승공 김창남 임안무 육순재 윤효운 이종호 임용규 김홍서 최종진 김병오 최종일 김중권 송용재
- 1970 조영갑 박홍식 이성춘 장극기 인정길 조남현 노승국 김형달 방준재 최원일
- 1971 노재홍 홍성진 이성길 김제홍 김창구 김성환 박동수 장문석 서정자 장 철 고기영 강유구 배성호 강창홍 서상현 강태수 김효순 조세진 김일영 궤승용 이원택 박진국
- 1972 황용규 정진우 김현배 김광호 오용호 석창호 장병호 이기진 이신재 김재석
- 1973 위장호 나두섭 김정용 박진섭 임준형 이영복 심완섭 김천일 민인기 서인석
- 1974 권철수 최태식 김용진 이진현 권철수
- 1975 박인영 전경배 김명호 김자역
- 1976 김대중 김승관 최광휘 유영걸 김정아 한승진
- 1977 박일우
- 1980 박남훈
- 1994 안상훈
- 1949 김지익 고영철
- 1951 박준홍 최영수 이상하
- 1954 김갑균 이동식

한성업(59)	75	한성수(60)	75	황현상(61)	100	강창욱(61)	150
이기범(62)	50	윤홍철(62)	75	한광수(63)	200	이범세(63)	50
김계윤(63)	75	김성철(67)	75	이승공(69)	100	윤효운(69)	75
김형달(70)	100	강유구(71)	300	김일영(71)	10,000	임준형(73)	100

### Scholarship Fund

정태진(59)	25	이기범(62)	100	서인석(73)	100	김자역(75)	500
---------	----	---------	-----	---------	-----	---------	-----

### Charity

김신형(56)	500	정태진(59)	25	김한중(62)	125	주의돈(64)	200
라찬국(64)	100	홍선경(64)	100	이한중(65)	300	김건언(65)	100
이성근(66)	200	강창홍(71)	300	임준형(73)	100	민인기(73)	100
김용진(74)	100	김자역(75)	500				

### Green Project

Mrs. 박준홍(51)	200	김은섭(59)	275	김은섭(59)	300	이용길(62)	200
허선행(64)	100	민발식(66)	200	변영석(69)	100	서정자(71)	75
오용호(72)	100	임준형(73)	100	서인석(73)	100	박남훈(80)	125

### Member Directory Fund

나수섭(50)	75	이상하(51)	100	노용면(55)	75	김신형(56)	100
차봉회(57)	100	임종원(57)	150	김양호(57)	100	임영신(58)	50
이운순(58)	100	송세엽(58)	75	김은섭(59)	100	최해숙(59)	100
김병구(59)	100	정태진(59)	25	이교락(59)	100	김용덕(59)	50
이순환(60)	75	박춘명(60)	200	박명근(60)	50	염극용(60)	100
최지원(61)	75	장성환(61)	50	황현상(61)	200	최태순(61)	25
강창욱(61)	50	민경환(62)	125	윤홍철(62)	75	이기범(62)	25
김한중(62)	150	하상태(63)	200	한광수(63)	125	권영조(63)	100
김현철(63)	175	장세근(63)	50	김태형(63)	100	이흥표(64)	100
양운택(64)	100	홍선경(64)	100	이한중(65)	100	채도경(65)	100
이재진(65)	100	이한승(65)	75	장한교(66)	50	이소희(67)	100
서윤석(68)	50	서관우(68)	50	차재철(68)	150	변영석(69)	100
윤효운(69)	100	이승공(69)	100	이성길(71)	50	오동환(71)	100
김창구(71)	75	김성환(71)	50	정진우(72)	100	오용호(72)	100
서인석(73)	200	임준형(73)	100	오인환(73)	100	권철수(74)	100
박인영(75)	50	김대중(76)	100	김승관(76)	100	김동수(78)	100
전영식(78)	100						

## 2012년 동창회 주소록 발행을 준비하며

Directory Ad Hoc committee 에서 지난 4월에 나갔던 Questionnaire에 이어서 Final Questionnaire를 내 보내려 합니다.

본인의 information을 update 하여 동창회로 연락을 주시지 않으시는 회원의 정보는 2006년 주소록 발행에 준한 정보가 그대로 2012년 동창회 주소록으로 발간될 수 밖에 없으니 아직 보내주시지 않은 동문들께서는 새로운 정보를 빠짐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이사회에서는 동문 자녀 중에 의사 자녀들은 2012년 동창회 주소록에 게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정보 또한 보내주시면 넣을 것 입니다.

새 주소록 발행을 위하여 각 개인의 정보를 보내주시는 점에 감사를 committee 에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4월 달에 발송된 Questionnaire를 이미 작성하여 보내주신 회원님은 다시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보내지 않으신 회원들께서는 아래의 형식으로 시계탑에 첨부된 Questionnaire를 작성하셔서 동창회로 email 혹은 Fax, 우편으로 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to snucmaa@yahoo.com Fax: (516) 365-5501

우편은 동창회 사무실로 : SNUCMA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박진국 Membership Directory chairman

### 2012년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주소록 발행 준비 Questionnaire(Final)

이름	Last Name		First Name		State	Zip
	한글	영어 이름	한글	영어 이름		
출생년도	( )					
전공	( )					
Status	Active ( )		Retired ( )			
집 주소	Address		City	State	Zip	
직장 주소	Address		City	State	Zip	
전화	Home phone		Work phone	Cell phone	Fax	
E-mail 주소						

### 의사 자녀에 대한 information

자녀 이름 #1	Last Name		First Name		State	Zip
	한글	영어 이름	한글	영어 이름		
전공	( )					
직장 주소	Address		City	State	Zip	
E-mail 주소						
자녀 이름 #2	Last Name		First Name		State	Zip
	한글	영어 이름	한글	영어 이름		
전공	( )					
직장 주소	Address		City	State	Zip	
E-mail 주소						
자녀 이름 #3	Last Name		First Name		State	Zip
	한글	영어 이름	한글	영어 이름		
전공	( )					
직장 주소	Address		City	State	Zip	

## 동창회비 납입 및 후원금 납입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12~June 30, 2013)

MEMBERSHIP DUES	\$125.00
GENERAL DONATION	\$
DONATION FOR 2013 CONVENTION	\$
SCHOLARSHIP FUND	\$
CHARITY FUND	\$
GREEN PROJECT FUND	\$
NEW DIRECTORY FUND	\$
<b>TOTAL</b>	<b>\$</b>

Name: \_\_\_\_\_ Class: \_\_\_\_\_

E-Mail: \_\_\_\_\_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MAA /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

이영모(59)	100	송영두(62)	200	임춘수(63)	100	허선행(64)	100
윤효운(69)	300	김창구(71)	300	배성호(71)	300	조세진(71)	75
이원택(71)	75	서인석(73)	300				

### General Donation

노용면(55)	500	김익창(56)	100	송세엽(58)	100	최용천(59)	10
---------	-----	---------	-----	---------	-----	---------	----



### 제 30차 학술대회 후 이어질

# Post Convention Tour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해외여행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미국내에 있는 명승지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에는 정기학술대회를 끝내고 3월 17일(일)부터 3월 22일(금)까지 5박 6일간 미 서부지역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황금관광’으로 동문 여러분을 모시기로 했다.

세계 제일의 관광지 라스베가스에서 이틀을 자면서 O’Ka, Phantom 두 불멸의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그랜드캐년, 개년랜드, 아치스, 브라이스, 자이언 등 5개 국립공원과 레이크 파웰의 유람선, 그리고 나바호 인디언의 성지인 모뉴먼트 벨리 등을 두루 둘러보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여정으로 일반 여행사하고는 격이 다른 ‘맞춤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사라져가는 American Indian 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해보자는 것이 이번 여행의 테마로 관심이 있는 동문들끼리 모여서 1시간 정도 토론할 기회도 마련하였으니 미리미리 Mrs. 김일영(626-355-0526)을 통해 예약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여행경비는 1인당 약 6백불 정도를 예상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예약시 결정될 것이다.

물론 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동문 대부분이 식후에 그 뒷맛을 음미할 만큼 여유를 갖게 되었으니 행사가 끝난 다음에 못다한 우정과 애뜻한 정을 다만 며칠이라도 더 나눠보자는 취지로 금번 회장단이 야심작으로 내놓은 이 기획작품에 많은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1일차: 3/17 (일)

Las Vegas

2일차: 3/18 (월)

Grand Canyon

3일차: 3/19 (화)

그랜드캐년 댐 및

Lake Powell 모뉴먼트 벨리

4일차: 3/20 (수)

Arches 국립공원

5일차: 3/21 (목)

Bryce Canyon, Zion Canyon, Las Vegas

6일차: 3/22 (금)

Barstow, Los Ange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